

도내 고대 · 가야 · 건축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북도-완주문화재단연구소
문화유산 학술연구 협약
올해 조사연구 국비 투자
도내 문화재 가치 새로 창출



전북도는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단연구소와 25일 오후 2시 국립완주문화재단연구소에서 전북도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등에 서로 협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는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단연구소와 25일 오후 2시 국립완주문화재단연구소에서 전라북도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등에 서로 협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고대문화유산, 가야문화유산, 각종 건축문화유산 등의 연구조사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국립완주문화재단연구소의 협약으로 전북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과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에도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가능해지면서 적극행정의 기초가 구축될 수 있게 됐다.

박승기 도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지난해 신설된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단연구소가 20년도 전라북도 고대문화 및 가야문화유산 등을 연구·발굴·보존하기 위해 12억원의 국

비를 투자할 계획이다"며, "이번 협약으로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 지역 문화유산을 발굴조사와 최신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립 익산박물관, 잠정 휴관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신상호)이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2월24일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개관 일정은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이번 휴관 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관 기간 박물관의 시설 및 모든 집기를 전면 방역 소독하여 향후 정상 운영 시 관람객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www.iksan.museum.go.kr) 참조 하거나 대표전화(063-830-090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천주교 전국 성당 95% 미사 중단

전주교구도 동참

천주교 미사교구가 25일부터 미사를 중단한다. 이로써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천주교 전체 16개 교구 중 14교구가 당분간 미사를 지내지 않는다. 성당수로는 1700여개의 전국 성당 중 1660개가 미사를 중단하는 꼴로 이는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천주교의 미사 중단은 대구대교구부터 시작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나오며 대구대교구는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교구 중 최초로 미사를 중단했다. 이어 최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다수 발생한 안동교구는 22일 미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같은 날 광주대교구는 교구 창설 83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했다. 수원교구는 오는 3월11일까지 주일 미사를 포함해 교구 내 분당 공동체 미사와 모든 교육 및 행사, 각종 단체 모임을 잠정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청주, 부산, 군중, 인천, 전주, 춘천, 의정부, 대전교구 등 8개 교구와 군중교구가 미사 중단 움직임에 동참했다. 특히 26일에는 서울대교구가 1831년 교구가 생긴 이래 190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했다. 서울대교구는 3월10일까지 미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미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교구는 원주교구, 제주교구 등 2곳이다. /뉴시스

제23회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내노라 하는 전국 옷칠목공예품들, 남원서 '한눈에'



남원시와 남원목공예협회는 오는 3월 1일까지 제23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출품작을 접수받는다. 남원의 옷칠 목공예대전은 우수한 목공예작품과 작가를 발굴·시상하고 공예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모전으로, 나무를 재료로 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2개 부문(옷칠목공예, 같이)에서 총 37점을 선정해 국무총리 상(대상)등과 함께 총 1억2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입상작은 4월부터 8월까지 남원 예투원,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 전북도청 기획전시실 등에서 순회 전시하여 목공예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희망지는 시 홈페이지(www.namwon.go.kr)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또는 서울 성북구 남원시 서울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대회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본 대전을 통해 옷칠 목공예산업에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신진작가들이 작품을 인정받는 명예를 얻게 된다"며 전국 목공예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 내달 1일까지 출품작 신청접수
입상작은 4월부터 8월까지 순회 전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